죽음보다 강한 사명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하나 되는 삶

소그룹 나눔 자료 · 사사기 16:28-30

본문

사사기 16:28-30

설교 핵심 요약

삼손은 눈이 뽑히고 조롱거리로 전락해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기둥 사이에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순간, 삼손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이며, 사명을 회복한 사람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조차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함께 찾아볼 구절

1. 빌립보서 1:21 · 사는 것이 사명이고 죽는 것도 유익이라는 고백은 삼손이 죽기를 원하노라 외친 그 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2. 로마서 8:28 ·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삼손의 비참한 상황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3. 요한복음 12:24 ·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은 삼손의 죽음이 헛된 끝이 아니었음을 비춰줍니다.
4. 에스더 4:14 ·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고백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자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삼손이 끌려간 다곤 신전은 2 층 구조로 추정되며, 1 층에는 블레셋 방백들이, 2 층에는 축제를 즐기던 시민 약 3 천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삼손이 재주를 부렸다는 표현은 단순한 묘기가 아니라 웃음거리로 끌려 나와 조롱당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눔

1. 여는 질문

1. 한참 잘 해오던 일에서 큰 실수를 저질러 주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완전히 무너진 적이 있다면 가볍게 나눠주세요.
2.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 어떻게 다가오나요?

2. 말씀 나눔

1. 본문에서 삼손이 기둥을 더듬어 붙잡기까지 그는 어떤 상태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본문을 따라 확인해 보세요.
2. 삼손이 28 절에서 외친 기도는 자기 목숨을 구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삼손의 개인적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하나 된 순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3.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50%, 하나님이 50%를 더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 계신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4. 삼손은 사명이 무엇인지 스스로 선택한 적이 없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진 길이었습니다. 내가 원해서 택하지 않은 자리나 역할 속에서도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지, 솔직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3. 더 깊이

1. 삼손이 이기고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았다는 사실은, 가장 비참해 보이는 순간이 오히려 가장 크게 쓰임받는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삶에서 가장 무너졌다고 느꼈던 순간이 돌아보니 오히려 의미 있던 때는 없었는지 나눠보면 어떨까요.
2. 삼손이 사명을 되찾기 전, 눈이 뽑히고 조롱거리가 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지 상상해 보고, 지금 내 삶에서 응답이 지연되는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나눠주세요.

4. 삶의 적용

1. 이번 주 집이나 직장에서 내키지 않는 일을 맡게 되는 순간, 그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뜻으로 여기며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해보는 하루를 정해보세요.
2. 이번 한 주 가장 무너지기 쉬운 순간, 내 체면이나 자존심이 꺾이는 순간을 떠올려 보고, 그 자리에서 삼손처럼 부르짖는 대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이겨낼지 나눠주세요.

이번 주 실천

1. 화요일 저녁, 가족 중 한 사람에게 내가 떠맡기 싫어했던 역할이나 책임을 이번 주는 기꺼이 감당해 보겠다고 말해보세요.
2. 주중 직장이나 모임에서 체면이 상하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짧게 하나님께 마음으로 부르짖어 보세요.

이 중 하나를 골라 실천해 보고, 다음 모임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함께 기도

- 내가 원하지 않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하나 되기를 구합니다.
- 체면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합니다.
- 죽음보다 강한 사명을 품고 사는 한 주가 되기를 구합니다.

마무리 기도

하나님, 두 눈이 뽑히고 조롱거리가 되었던 자리에서도 다시 부르짖었던 삼손처럼, 저희도 가장 낮아진 순간에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제 뜻과 주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 사명임을 기억하며, 이번 주 내키지 않는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체면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죽음보다 강한 사명을 품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눔 메모